

# 올바른 예배 (1)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복음-흠정역 4: 21-2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 1. 예배의 장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리셔서 그곳에 사는 복잡한 과거를 가진 한 여자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그 여자로부터 어디에서 예배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 많은 과거에 대하여 모두 알고 계시는 이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 즉 예배 장소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꼭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북 이스라엘 왕국의 주민들과 시리아인들의 혼혈 자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백성의 오랜 불편한 심정을 이렇게 주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즉,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성전을 가르키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요한 2: 19]”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성전이 자신의 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지은 제 2 성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이렇게 단적인 부정이었습니다.

저희가 2 년전에 천주교의 본부인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을 둘러보았는데, 여행 가이드가 그 성당의 건축에 들어간 엄청난 금의 양과 예술품 등의 가치에 관해 강조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훌륭하게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에 대하여 가졌던 자부심과 동일한 자세를 갖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태도는 주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24-25]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서는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이어야 함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사도행전구절은 신약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믿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집회를 갖는 건물을 '성전' 또는 '성당'이라고 칭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소수가 가정에 모여도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의 수가 많아져서 예배당 건물을 지어도 그 형상과 치장을 겸허하게, 그리고 교회에 재정적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건축해야 할 것이며, 그곳에 성도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각자 생활에서 거룩함을 지녀야 하며,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뤄 지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헤롯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 2. 예배의 대상

주님께서서는 4 장 22 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지칭하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그리스 산 위에 나름대로 신당을 세우고 그 앞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스스로 누구를 경배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주일에 성당과 예배당에 와서 미사와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예배 대상이신 분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신념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피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버지-자녀의 관계를 향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도 중에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지 건물을 짓고 희생물을 바치고 시끄럽게 음악을 하는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개인적인 [personal]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알게 [to know]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참모진에게 그런 의사를 전하고 그 분이 편리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타나되 적절한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면서 그 접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뵈려면 거룩하신 그 분에게 가서 뵈고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바 그 분의 뜻에 따라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경배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 보아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만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준엄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실상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했지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오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언자 호세아가 바로 사마리아의 이런 송아지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호세아 8:5-6] 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

이 송아지 숭배는 원래 이집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2 백여년 사는 동안에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모세가 호렘산에서 내려 오는 일이 지체되자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본 경배 방식을 따라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집트식 예배, 즉 시끄럽게 음악을 하고 신나게 춤을 추는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와의 산에서 내려 오면서 보게 된 광경이 바로 그런 매우 잘못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5-8]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6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문제는 그들이 금 송아지 우상 앞에서 경배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리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우리의 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간구로 멸망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 백년 후에 북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전통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께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라고 지적하였습시다만, 그 분의 말을 들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수 없이 많은 절과 성당과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상, 마리아의 상, 세인트들의 상, 부처의 상, 심지어는 하나님의 상이나 그림 등을 세워놓고 신도들이 절하고, 목주 돌리고, 기도를 외우고, 물질을 바치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손으로 나무나 금속이나 돌이나 심지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것들을 신 (神)이라고 믿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예배 행위는 사마리아 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왜 석가모니나 힌두의 신을 안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록, 유지한 구약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 기록도 대략 4300 년 이전까지로 국한되며 그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약 6,000 년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맨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표명하셨고 그 계획이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 년 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서 불러 내어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축복을 줄 것을 지금부터 약 5,000 년 전에 약속하셨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16-18]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다윗왕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양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초기에 복음은 모두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과 이방 크리스찬들과의 관계를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1:17-20]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대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그들”이라 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울께서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하여 사랑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꺾였다고 하여 완전히 잘라졌다는 것은 아니며,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 [代替 Replace]’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위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결코 대체 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은 유대인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으며, 종말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통해 행해진 수 많은 유대인 학살과 차별 행위는 비판되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1:26-27]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상이나 그림을 세워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면 그 행위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당연한 예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년 이상 전해 온 예배의 형식이므로 전통에 따라 당연한 예배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다음 두가지 이유로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하나로 우상 숭배를 금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두번째 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4-6]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계명을 어기면 삼사 대 후손들까지도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겠다고 하면 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전통을 지키려 합니까?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 엄중한 계명을 위배하는 일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으로써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미움을 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다른 점, 반드시 달라야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가리킬 수 있는 형상이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상이나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5:1-8]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창조주 이십니다. 가장 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나무나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육신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어머니 마리아는 승천하지도 않았고 사도 요한의 보호함을 받으며 오늘날  
터키 서부 지방에서 사시다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영혼은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 분을 공경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숭앙하며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라고 조작하여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생전에 승천했다면 1 세기 또는 늦어도 2 세기의  
기록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당연합니다. 만일 그 승천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을 돌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서신이나 계시록에 그러한 중요한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록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교리는 후세 5 세기에 들어 지어낸 허위 교리에 불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